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인문대학	학과(전공)	일본어일본학과
도전학기 과제명	(한글)한반도 역사 속 일본과의 교류-왜관을 중심으로- (영문)Interaction with Japa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 on the Waegwan(Japanese Residency) -		
지도교수 의견	근세, 근대 한일간의 역사 속에서 조선에 대한 교역을 위한 일본인 거주지로서의 왜관에 대해 실제 답사를 통한 면밀한 고증과 분석을 했다. 교실 내에서의 수업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발로 뛰며 검증과 현지답사를 거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의미있는 학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원고 작성과 동시에 답사 일정을 마무리 지어 왜관과 관련된 독서와 답사를 통해 배운 한일 교류를 바탕으로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여 책을 제본한다. 책을 제본해봄으로써 창의적인 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글 등,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을 제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책 제본 관련한 소통을 하면서 업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의를 둔다. 또한 일본어일본학과를 전공하는 한국인 학생으로써 전공을 살려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답사하며 스스로 전공을 연구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2. 도전 과제 내용

서울에 방문하여 조선시대 한양의 왜관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직접 그 터를 둘러본다. 그리고 창원에 방문하여 제포왜관과 관련된 터를 둘러보면서 당시의 모습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2차 방문하여 1차에 못 갔던 장소와 박물관과 역사관, 그리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왜관의 터들을 찾아가 당시의 모습을 예측해 본다. 이러한 답사들과 구입한 도서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답사에 대한 짧은 소감을 넣어 책을 완성한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1. 서울 방문

- 5대 고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 고궁 박물관: 5대 고궁에서 일본 사신을 접견하고 접대한 장소 탐색
- 서울 역사 박물관: 조선시대 한양의 옛 모습 공부
- 동평관 터: 한반도 속 한일 교류의 장

2. 창원 방문

- 창원 시립 진해 박물관: 왜관에서 벌어진 전쟁사 2가지
- 제포성지, 제포왜관, 웅천읍성: 제포왜관과 관련된 터, 옛모습 짐작

3. 부산 방문

- 국립해양박물관: 한일교류, 조선통신사, 왜관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없었음,
절영도 왜관이 있던 영도에 위치
- 용두산공원(초량왜관 터): 이곳을 중심으로 한 초량왜관,
코로나 상황으로 전망대에 올라갈 수 없어서 정보는 얻기 힘들
- 두모포왜관 터: 비석만 남아있으며 YMCA 부산지점 근처 작은 공원에 위치

4. 책 제본

- 디자인 미팅 완료
- 원고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일 약 일주일 전
- 책은 보고회 전날 학교에 도착 예정

5. 울산(처용암) 답사는 거리와 답사 내용을 고려하여 제외했다.

4. 자기 평가

왜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과 지도 검색을 통해 왜관의 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대부분 터만 있거나 터를 알려주는 비석마저 사라진 장소도 있었다. 답사를 하면서 연구하는 힘든 주제를 선택했던 것 같다. 주제와 활동 계획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지 못한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은 과하게 답사를 일정에 넣다 보니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지체가 되고 결과물이 원래 일정보다 늦게 나온 것을 보았을 때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판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성실하게 예정한 답사와 결과물 작성에 모두 임했으며 부족한 정보지만 많은 검색을 통해 답사를 갔다 오고 처음 경험하는 것에 비해 책 제작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5. 최종 결과물

- 책: 학교로 바로 배송 예정